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미륵사지 모형 앞에서 가람구조를 살피는 답사단.

성역화추진위, 백제권 고중세 사찰 답사

전통 · 현대 융합 방안 모색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추진위원회가 원만한 불사계획을 세우기 위해 백제권 고중세 사찰을 답사했다.

이석심 추진위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답사단은 6월 24~25일 익산 미륵사지 · 부여 정림사지 · 백제문화재현단지 · 부여 무량사 · 예산 수덕사 등을 답사했다.

지난 3월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역화 불사 추진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답사는 전통건축기술을 바탕으로 세워진 고중세 가람 및 전통사찰을 돌아보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마련됐다.

추진위는 답사를 통해 조계종 총본산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성역화 대작불사에 부처님 가르침을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내용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심 본부장은 "전통 가람에 맞는 내용으로 잘 정비해서 불자나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통사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병화 전통사찰 전수조사 책임연구원은 "한국불교의 1700년 역사를 담아내기엔 현재 조계사의 협소한 부지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답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녹여내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륵사지와 정림사지를 둘러본 답사단은 회랑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역화 불사의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선사 신임주지 영일 스님 취임

"지역주민 · 후학양성에 노력"



광주 광산구 금선사가 신임 주지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교육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광산구 송정공원에 위치한 금선사는 6월 30일 대웅전에서 '감로탱화 점안식 및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 정광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 금선사 회주 영명 스님, 정광학원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여수 흥국사 신도를 비롯한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신임주지 영일 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 시주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갚는 길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후학 양성을 위해 부처님을 시봉하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은 법문에서 "늘 정진하듯이 불보살님을 모시고, 대중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선사는 앞으로 일요법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정광학원 학부형 불자들을 위한 신행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영일 스님은 1987년 화엄사 명선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91년 범어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해병대 군종 대위로 예편 후 흑룡사, 해동사, 쌍룡사, 청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정광중학교 교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금선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로 건립돼 해방 후 백양사 만암 스님이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도량으로 사용하면서 사찰로 개축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특히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의 기숙사 형식의 사찰로 운영하면서 많은 큰스님들이 기거하면서 학업을 닦은 이력을 갖고 있다. 현재 경내에는 일본양식의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엄마랑 밖에서 함께 밥 먹어 좋아요!"

광주 자비신행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외식 선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예정, 후원 · 봉사로 의기투합


자비신행회가 마련한 '신나는 어린이 레스토랑'은 광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8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마른장마라 하더니 비는 오지 않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한 날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자비신행회 무료급식소에 평소 보기 드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재가불교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식당이다. 평일 언제나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밥상을 공양하는 급식소가 이날만큼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형형색색 풍선과 새로 구입한 테이블보로 꽃단장했다. 이 때문인지 식당 내부는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한껏 내어 품위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이날은 자비신행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나는 어린이 레스토랑'이 처음 열리는 날이었다. '어린이 레스토랑'은 동구지역 저소득계층 아이들 80명을 초청해 맛있는 스프와 돈가스, 팥빙수 등 먹거리를 선물하는 자리다. 동구청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동구지역아동센터 6곳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이 레스토랑을 찾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식을 자주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근사한 외식을 선물하고자 기획돼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이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는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교육의 첫 시작이다. 특히 외식을 통해 아이들이 식사예절을 배우고,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통해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 눈높이로 식당 단장
아동센터 연계 80여명 참여
돈가스 · 팥빙수 선호 음식 마련
"뜻깊은 가족 추억으로 남길"

엄마와 함께 첫 외식 나들이를 한 이노(초2) 어린이는 "엄마와 함께 밖에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음식과 식사도구를 앞에 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잘 먹겠습니다"는 인사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행사는 여러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릇, 포크, 나이프 100세트와 돈가스 주재료 등이 후원으로 모아졌다. 특히 자비신행회 십시일반 밥차에서 활동하는 오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손수 팥빙수 120개를 만들어 뜻깊은 정성을 보탰다.

행사를 준비한 김영섭 사무처장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신나는 어린이 레스토랑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외식의 추억을 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학교 부적응 청소년 위한 치유교실

전북불교네트워크,
6월 25~26일 부안 개암사서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과 학생들이 차담을 나누는 모습.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는 6월 25~26일 부산 개암사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 부딪히는 어려움은 물론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기획됐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찾고 나아가 자아회복, 정체성 정립과 독자적이며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조교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부안 능가산 개암사를 찾아 주지 재안 스님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이어 트레킹을 하며 백제 마지막 항전지였던 역사적 장소인 복신굴과 우금암 바위 절벽에 위치한 원효방 등을 찾아 자연 속에서 역사를 느끼며 협동심과 호연지기를 다졌다.

또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염귀녀 센터장과의 집단상담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협동놀이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장하자고 마음을 다지는 기회도 마련됐다.

26일에는 새벽예불, 다도, 주지스님 차담, 개암사 둘레길 산책 및 문화재탐방 ·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참 나라는 존재를 찾아 사회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고등학교 3학년 노은지(가명) 학생은 "마음이 힘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이날 전북생명평화센터 생명평화 무료밥상에 사용해 달라며 20kg 쌀 25포대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야, 富者되자"

전주 참좋은우리절,
우승택 교수 초청강연

"우리는 태어날 때 불성과 지난 생의 내신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업을 갖고 태어났다. 결국 우리는 완전한 불성을 잘 살려 장애물인 업을 활용하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한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6월 19일 우승택 숭실대 PB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교수는 "스스로가 부처님 성품을 갖고 있음을 알아 기복수행이 아닌 불교 본질을 이해하려는 수행이 될 때 현실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세태를 지적하고, 스스로 참회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과 관심이 자녀가 갖고 있는 불성을 망친다"면서 "자기 스스로 부처님 앞에 참회하며 삶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자녀의 일에 간섭하기 보다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